

찬란함에는 기쁨이 있을까, 슬픔이 있을까? 생명 근원을 드러내는 그 찬란함은 분명 기쁨에 속할 것으로되, 한편 '찬란한 슬픔의 봄'을 노래한 어느 시인의 감각에는 그 찬란함 속에 슬픈 가슴살아가 보인다.

색깔의 찬란함이나 화려하기로는 봄과 가을이 다르지 않으나 사람들은 '찬란함'이란 단어를 가을에 비해 봄에 많이 붙인다. 색과 함께 세상이 어둡거나 기적처럼 갑자기 펼쳐지는 지상의 꽃 잔치 때문일 것이다.

"모든 죽어가는 것은 아름답다"며 <시간의 이빨>이란 책을 쓴 미다스 데커스는 "사람들이 봄에 과수원 꽃구경을 하러 물러들지만 가을 탐스런 과일들을 보러 일부러 과수원 찾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푸념을 한다. 봄과 가을이 주는 느낌의 차이랄 할까.

꽃구름 속에서 사람들도 구름처럼 떠돌며 꽃구경을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요즘 꽃구름 있는 곳 어디에서나 사람구름이 함께한다.

아무리 작은 꽃 한 송이라도 만개(滿開)의 순간 한번 파르르 떨게 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고양된 생명감의 절정에서 오는 환희의 떨림인지 아니면 만개를 위한 진력(盡力)의 고통에서 오는 몸부림인지, 그런 떨림이 있고야 열매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도 그런 떨림이 전달되는 것일까? 그래서 꽃구름 속에 파묻히고 싶어지는 것일까?

봄은 꽃의 계절이지만 계절에 걸 맞는 철새들



불자 세상보기

김정자 칼럼니스트

찬란함에 대하여

로테이션의 계절이기도 하다. 기러기, 북방 까마귀, 청둥오리 등 겨울 철새들의 색깔은 북방에 어울리게 어둡고 그다지 화려하지 못하다. 한편 그들은 귀포에 거대한 때를 지어 지나가면서 지나는 길 위에 분노 성 비마져 뿌리고 간다.

그들이 가고나면 뒤를 이어 꽃들이 피고 꽃 색깔과 어울리는 자못 화려한 것들을 가진 여름철새들, 피꼬리 빠꾸기 소쩍새 두견이 파랑새 해오라기 물총새 노랑할미새 붉은 뺨 멧새 휘파람새 등이 신록 속을 누비며 알을 낳는다. 돌아 온 여름 철새들마저 봄에 찬란함을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런 찬란함에 슬픔이라고? 감정에 대해 연구하는 현대의 뇌 과학자나 신경과학자들이라면 기쁨과 슬픔에 관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포근한 기온 등 몸의 건강을 최상으로 유지시켜주는 여러 가지 신체 내 외부의 조화로운, 바다나 일몰 등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는 경관들, 아름다운 음악, 사랑 하는 것 등에서 오는

느낌이 기쁨일 것이고 여러 종류의 상실감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느낌이 슬픔이라고.

그야말로 과학적인 냉정한 분석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봄이아말로 기쁨의 계절이다.

그런데 이 기쁨의 계절에 왜 자살률이 높아질까?

사람들은 안락함을 느끼는 아름다운 환경 속에 있으면 삶의 의욕이 높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자살에 대한 한 연구에 의하면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은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도전이 부딪혔을 때 오히려 삶에 대한 애착을 더 갖게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살고자 하는 열망은 전쟁터에서 더 높아지며 개인적으로 극복해야할 극한상황에 처했을 때 생명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으려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다. 안락하면서도 찬란한 계절에 죽음의 유혹을 더 받게 된다는 것은 지극한 기쁨이 지극한 슬픔에 맞닿아 있어서일 것이다.

과연 슬픔이 상실감에서만 느껴지는 감정일까? 꽃이 피어서 기쁘고 꽃이 저서 슬퍼진다는 그런 단순한 구도일까? 그런 슬픔에는 깊이가 없다.

찬란함은 기쁨 속에 슬픔이 더해짐으로 해서 무게와 깊이를 더하고 빛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많은 대중들 앞에 앉아서 서 어찌하여 꽃 한 송이를 꺾어두고 미소를 지으셨을까?

우리 모두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루 분량의 즐거움을 주시고 일생의 꿈은 그 과정에 기쁨을 주셔서 떠나야 할 곳에서는 빨리 떠나게 하시고 머물러야 할 자리에는 영원히 아름답게 머물게 하소서 누구 앞에서도 똑같이 겸손하게 하시고 어디서나 머리를 낮춤으로써 내 얼굴이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60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어떤 일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나 자신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 이 아름다운 진리를 일깨워주는 글을 한 50대 보살님이 보내주셨다.

인내하게 하소서

인내는 잘못을 참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깨닫게 하고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인내에게 하소서 용기를 주소서 부끄러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용기를 주시고 용서와 화해를 미루지 않는 용기를 주소서 음악을 듣게 하시고 햇빛을 좋아하게 하시고 꽃과 나뭇잎의 아름다움에 늘 감탄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나 귀 기울일 줄 알고 지켜야 할 비밀은 끝까지 지키게 하소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람의 참 가치와 모습을 빨리 알게 하소서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나이가 들어 쇠약하여질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을 좋아하게 하소서 삶을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건강을 주소서 그러나 내 삶과 생각이 건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소서

질서를 지키고 원칙과 기준이 확실하며 균형과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시고 성공한 사람보다 소중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고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늘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인간관계 VS 이해관계

최근 선거 등으로 인해 회비가 엇갈리며 힘을 이하는 사람들이 있다.

늘 어떤 일들에서든 성공, 성공을 강조하여 때로는 인간관계도 자신의 이익에 따라 성공과 실패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가족, 친구 사이에서도 진실한 마음보다 이익을 따지는 경우를 보게 된다. 그럴 때 서로 간에 참다운 인간다움은 자취를 감추고 껍데기인 이해관계만 남게 된다.

인간관계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되어 버리지도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겠다. 성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조계종 포교 인프라 약하다

최근 조계종이 밝힌 자료집에 따르면 조계종에 등록된 스님은 1만3576명이고 사찰은 2444곳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한 사찰 당 거주 스님은 평균 3.7명이다. 굳이 이를 계산하는 이유는 포교인력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조계종 입장에서 보면 절대 부족할 수치다. 연령 65세 이상과 예비승 그리고 선원의 안거대중을 포함한 수치를 빼면 1만 명이 안 된다.

'포교는 불교의 미래이고 시대적 사명'이라는 구호조차 이제 힘을 잃을 정도로 포교에 대한 종단적 집중력이 약한 게 조계종의 현실이다. 물론 포교원이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 나가는 부분도 있고 많은 스님들이 도시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포교 원력 하나로 각고의 정진을 해 나가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조계종을 잘 들여다보면, 포교에 대한 인프라가 매우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관적인 정책의 부재도 문제고 일선 포교사찰에 대한 지원 부족도 문제다. 애써 양성해 둔 전문포교사를 활용하지 못하는 대목에서는 좌절감마저 느끼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스님들의 수치적 분포는 포교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조계종의 미래도 어떻게 느껴지게 한다. 종단 몸집의 크기와 포교활성화가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갖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력이 재산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계종이 포교사 활용을 위해 문을 더 넓혀야 하고 스님들도 포교 관련 교역을 의무적으로 감당하게 하는 등 제도적 보안을 고려해야 한다. 지금 타종교는 북한 지역과 중국 등 공산권은 물론 아랍계에서도 선교의 깃발을 흔들고 있지 않은가?

"연등축제는 우리의 전통놀이"

한국불교 최대 축제로 자리 잡은 연등축제의 연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조계종 문화부와 불족위원회가 이에 대한 답을 내리는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그간 제등행렬과 관등을 중심으로 하는 연등축제가 일제 잔재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이 학술토론회에서 연등축제는 일제잔재가 아니라 강한 주장이 제기됐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국장 미등 스님이 '일제강점기 연등축제 고찰'이란 주제발표에서 "연등제의 제등행렬과 육불은 일제강점기의 잔영이 아닌 전통적인 연등놀이였다"고 주장했다.

연등축제를 일제강점기의 잔재로 보는 시각의 배경이 무엇인 건에 연등축제가 우리 민족의 전통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확신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연등축제는 이미 불교계는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대형 축제로 자리 잡았다. 올해도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연등축제에 맞춰 한국을 찾을 것이다.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하는 연등축제가 보다 깊은 우리민족의 숨결을 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축제도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늘의 연등축제가 고려나 신라 때부터 전해 온 축제로 적극 홍보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만큼 우리 민족의 전통 축제다운 면모를 담아 내는 주체 측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Book cover for '영가천도의 중요성' (Importance of Yeonggacheondo) featuring the character '命' (Ming) and author '해천법사'.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 책자 안내
1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3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4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5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6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7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9 팔계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 1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3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화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4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5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6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7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당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 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필름